

杜詩諺解의 書誌的 考察*

安 秉 禧

1. 머리말
2. 底本과 諺解

3. 原刊本과 그 校正
4. 맺는말

1. 머리말

杜詩諺解는 너무나 잘 알려진 문헌이다. 문학작품의 성공적인 번역으로서 다양한 어휘자료를 제공하여 國文學史와 國語史 연구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書誌를 다루는 일은 다 아는 사실을 종합하여 되풀이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에도 간혹 맹점이 있다. 이 책의 서지에서도 그러한 것이 없지 않다. 한 僧侶가 이 책 諺解者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 후대의 野史의 기록에 근거하여 전승된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그밖에도 책의 체재와 校正 등에 대한 사실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은 필자 자신이 행한 간단한 해설(안병희 1971:313-5 및 1992a:521-3)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새로이 검토하여, 이 책에 대하여 原刊本을 중심으로 한 서지적인 고찰을 행하기로 한다.

* 이 글은 지난 5월 23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人文研究室 주최의 「杜詩와 杜詩諺解」란 학술세미나에서 행한 발표 요지이다. 내용에 약간 손질을 하여 그대로 실는다. 따로 실어 발표하도록 허락한 세미나 주최측에 사의를 표한다.

2. 底本과 諺解

책의 卷頭 書名 곧 首題는 分類杜工部詩다. 工部는 唐나라 詩人 杜甫가 檢校로 있으면서 工部員外郎을 겸한 일이 있는 데서 유래하므로, 杜工部는 곧 杜甫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 서명은 杜甫의 詩를 분류하여 수록한 책임을 뜻한다. 분류의 기준은 主題에 따른 것으로서 紀行, 述懷, 疾病 등이 그 門目이다. 언해한 책이면서도 서명에 그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刊經都監 간행의 佛經諺解의 예에 일치한다. 그 책들은 原典의 서명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杜詩諺解의 원전은 分類杜工部詩가 아니다. 그런 원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굳이 원전을 말한다면, 纂註分類杜詩(이하 纂註杜詩라고 줄인다)라고 할 수 있다. 원전과 서명이 다른 것은, 佛經諺解가 本文을 언해할 뿐 아니라 註疏까지 언해하거나 또는 그대로 수록한 데 대하여 이 책은 원전의 詩 본문은 모두 언해하였지만 주석은 본문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초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纂註杜詩를 底本으로 한 언해라 할 것이다.⁽¹⁾

그러나 이 책은 이 글의 표제와 같이 일찍부터 杜詩諺解로 불려져 왔다. 무엇보다도 이 책 重刊本에 실린 張維의 서문이 「重刻杜詩諺解序」인 점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한다. 그밖에 顏樂堂集에 실린 金訢의 「翻譯杜詩序」에 따르면 翻譯杜詩라고도 부른 듯하나, 다른 諺解와 마찬가지로 杜詩諺解가 보편화된 서명이다. 이 책을 언급한 옛 文集이나 類書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저본인 纂註杜詩는 우리 나라에서 편찬, 간행되어 널리 읽힌 杜甫의 시집이다. 조선조에 수종의 活字本과 그 복각본을 간행하게 되어 크게 보급되었다.⁽²⁾ 현존하는 활자본을 간행 연대순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러한 이해는 우리 나라에서 杜詩諺解에 관한 가장 권위를 가진 업적인 이병주(1970:111 및 121)에 나타나 있다.
- (2) 이에 대하여는 이병주(1970:111-2) 및 이병주(1983:612-3), 심경호(1992)를 참조. 그러나 현존하는 활자본 가운데에서 甲寅字本을 가장 앞선 간본으로 본 사실 등은 따르지 않는다.

1) 甲辰字本

黑口에 黑魚尾로 된 판식이 가장 오랜 간본임을 말할 뿐 아니라, 책 뒤에 1485년(성종 16, 成化 21)에 쓴 金宗直의 鑄字跋이 있으므로 甲辰字가 만들어져서 곧 이 책을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엽에 12행 19자로 짜여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 고려대도서관 만송문고, 誠庵文庫 등에 흩어져 있으나 합치면 25권 완질이 된다.

2) 丙子字本

1516년(중종 11, 丙子)에 주조된 활자로 간행되었는데, 간년이 1523년(중종 18)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두종 1970:193). 추정의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다른 古書目錄에서 이 간년 추정을 따르고 있다.⁽³⁾ 이 간년대로라면 다음에 말할 甲寅字本보다 1년이 앞선다. 크게 잘못된 간본이 아니라면 1년만에 새 간본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16세기 20년대에 60년대 사이의 간본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반엽이 11행 20자로 되고, 三葉花紋魚尾가 있다. 활자본 가운데서는 전하는 책이 가장 적다. 모두 5권이 흩어져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甲寅字本

활자에 근거하여 세종 때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 일(이병주 1970:111 및 도판 설명)이 있으나, 1524년(중종 19, 嘉靖 3)의 내사본(고려대도서관 만송문고)이 있으므로 그때 간행된 책이다. 白口와 三葉花紋魚尾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반엽이 9행 17자로 된 行格은 뒤에 나온 간본에 그대로 답습된다. 전질에서 야간 권이 모자라지만, 여러 도서관에 흩어져 전한다.

(3) 최초의 예는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I(1970, p.132)의 일산문고 소장본에 대한 기술이다. 그것은 원 소장자였던 김두종 교수의 교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근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중종이 韓愈, 柳宗元의 文, 李白, 杜甫 등의 시를 간행, 또는 중국에서 사오도록 한 일(중종실록 18년 7월 丁亥조 참조)이 그 근거가 아닐까 추측될 뿐이다. 그러나 뒤에 나온 목록들은 이 간년만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4) 訓練都監字本

甲寅字体의 도감자본으로, 내사기에 따라 1615년(광해 7, 萬曆 43)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판식도 위의 갑인자본과 같다. 전질이 더러 전한다.

木版本은 위의 갑인자본이나 갑인자체 도감자본을 복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행격이나 字樣이 같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자양은 갑인자의 복각으로 보이면서 版心이 黑口에 黑魚尾 또는 花紋魚尾로 된 책(고려대도서관 만송문고 소장본 등)이 전한다(사진1). 이러한 판식은 15세기 중엽이나 후반의 간본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위의 1524년에 앞선 또하나의 갑인자본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1443년(세종 25)에 있는 杜詩 주해 사업의 결과로 간행된 책이 아닌가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세종은 杜詩에 대한 諸家의 주해를 구입하도록 하여 集賢殿에서 그것을 참고, 교정하여 하나로 만들도록 하고, 옛새 뒤에는 주해에서 의심나는 점을 묻기 위하여 檜巖寺 주지인 卍雨를 서울의 興天寺에 옮겨 있도록 하여 禮賓寺에서 三品職에 해당하는 봉록을 공급하도록 한 일이 있다.⁽⁴⁾ 그런데 그해 7월에는 심한 가뭄으로 杜詩 修撰은 그만둘 수 있다는 세종의 지시가 있으므로⁽⁵⁾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43년 6월 鞍馬를 내린 바 있는 만우에게 이듬해 5월에 옷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으므로⁽⁶⁾ 그 사업은 적어도 1년간 계속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杜詩 주해는 착수되었을 때 아직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므로, 杜詩의 언해와 직접 연관된 사업이 아니다. 기록 그대로 주해만 왕명에 따라 集賢殿 學士들이 진행한 사업이다. 그러나 만우와 같이 杜詩에 밝은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동원되었다. 成俔의 慵齋叢話에 따르면 白衣인 柳休復은 만우와 함께 참여하여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한다.⁽⁷⁾ 그는 백부

(4) 세종실록 25년 4월 丙午 및 壬子조 참조.

(5) 세종실록 25년 7월 辛未조 참조.

(6) 세종실록 25년 6월 乙酉 및 26년 5월 辛未조 참조. 그런데 어떤 사업이 끝나면 관계자에게 상으로 물품이 하사되는 관례가 있다. 1444년 5월에 하사한 것은 옷 4벌이다. 따라서 그것은 주해 사업이 끝난 데 대한 상사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7) 용재총화(권 7, 12a-13b) 참조.

이며 允謙의 아버지인 泰齋 柳方善에게 윤겸과 함께 배워 杜詩에 익숙하기로는 당시 견줄 이가 없어서 참여하였는데, 할아버지 柳沂의 죄로 과거에 응시조차 못한 白衣였다고 한다. 뒤에 그들은 1455년(세조 1) 세조에게 과거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上言을 하여 허락을 받고서⁽⁸⁾ 휴복과 윤겸이 각각 1460년(세조 6)과 1462년(세조 8)에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다.⁽⁹⁾ 그것은 어떻든, 杜詩의 주해는 승려와 白衣까지 동원된 사업이므로, 그 결과가 간행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바로 黑口에 黑魚尾인 甲寅字本 복각으로 추정되는 木版本의 저본이라 생각된다. 현전하는 甲寅字本の 복각이라면 底本の 版心을 옛날의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여야 되는데 복각에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甲辰字本에 앞서서, 1443년(세종 25) 이후에 杜詩 주해가 마무리되어 갑인자로 간행된 纂註杜詩를 杜詩諺解의 저본으로 상정함이 온당한 일이다.

그리하여 杜詩諺解는 이 纂註杜詩를 저본으로 언해되었다.⁽¹⁰⁾ 책의 卷次, 시를 분류한 門目, 시의 제목과 본문 등이 모두 纂註杜詩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小倉進平(1940:293-5)에서 杜詩諺解를 33권이라 하고 李德懋의 靑莊館全書「盜葉記」에서 33권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을 인용하였는데 김일근(1964, 1966)에서 33권설이 재고될 가치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병주(1965, 1966)에서 적절히 지적된 대로 완질은 저본과 같은 25권이 올바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다음 두 가지 근거로써 25권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근거는 原刊乙亥字本과 重刊本 권25의 권말서명 곧 尾題에 이은 권차가

(8) 세조실록 1년 8월 己巳조 참조.

(9) 國朝榜目に 따르면 世祖庚辰(1460) 平壤別試에 柳方敬의 아들인 柳孝復, 世祖壬午(1462) 秋試에 유윤겸이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방경은 방선의 동생이고, 윤겸을 효복의 종제라고 하였으므로 유휴복은 뒤에 효복으로 改名한 것이라 생각된다. 瑞山柳氏族譜(和順, 1933)에도 방선과 방경의 아들로는 윤겸과 효복만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권8 上, 40), 東華姓譜(규장각 소장본)라는 필사본에는 윤겸과 휴복이 문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조실록(10년 7월 戊寅조)에 年少文臣으로 나오는 유휴복도 뒤에 효복이라 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10) 저본이 반드시 갑인자 黑口本이라 고집하지는 않는다. 현전하는 纂註杜詩의 異本 사이에는 版式과 활자의 차이가 주된 것이므로, 현재 없어졌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한 어떤 刊本이나 原稿本이 저본이 되었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卷之二十五終」으로 되어 여기에만 「終」이 나타나서 이 책이 모두 25권으로 끝났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사진2 참조). 둘째 근거로는, 33권이라 한 것은 1675년(숙종 1)의 戊申字本 攷事撮要의 附錄에 「書冊印紙數」란 항목이 있고⁽¹¹⁾ 거기의 「杜詩諺解 紙三十三卷」이라 한 기록에 말미암는데, 이것은 1부를 인출하는 데 소요되는 종이를 말하는 것이나 1부의 권수로 잘못 이해한 데에 있다. 같은 부록에 나온 「大學諺解 紙十五張, 內訓 紙七卷」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도 분명한 잘못이다.

그런데 독립된 문목이 현전하는 纂註杜詩에서는 바로 앞 문목의 부록으로 처리된 예가 있다. 예컨대 甲辰字本 권7의 「居室下」에 「隣里附」(1a), 丙子字本 권11의 「晝夜」에 「夢附」(34a4), 都監字本 권6의 「宮殿」에 「宮詞附」(1a), 木版本 권9의 「釋老」에 「寺觀附」(16a)가 각각 주기되어 있다. 그러나 뒤의 본문에서는 주기된 문목이 독립되어 나오는데, 다만 「夢」의 경우만 문목 자리에 「古詩二首 律詩二首」(42b)란 수록된 시의 수효가 나타난다. 杜詩諺解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예를 따르나, 주기를 삭제하거나 문목을 새로이 추가한 예가 없지 않다. 권7의 「隣里附」(1a)는 삭제된 예인데, 杜詩諺解 원간본의 영인 저본에서는 목서로 주기를 써넣었다.⁽¹²⁾ 권11의 문목 「夢」(51a)은 추가되고 수록 시의 수효는 협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杜詩諺解는 1자 낮추어 문목, 다시 1자 낮추어 제목을 적는 체재까지 纂註杜詩를 답습하고 있다.

諺解는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曹偉의 「杜詩序」에 의하여 성종이 1481년(성종 12) 가을 弘文館 典翰인 柳允謙 등에게 주석과 언해를 명하면서 착수되었다. 그러나 이의 연원은 멀리 저본의 편찬인, 세종 때의 杜詩 주해에 소급된다고도 하겠지만, 가까이는 바로 언해를 명령한 해에 1년이 앞선

(11) 前間恭作(1957:1426)에서는 杜詩諺解를 모두 25권이라 하면서 攷事撮要를 康熙初年の 간본이라 하여 印紙 33권이라고 정확히 인용되어 있는데, 33권 7장에서 7장이 잘못 탈락된 듯하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고사촬요를 강희초년 간본이라 하였으나 그 책은 내사기에 따라 1675년(숙종 1, 강희 14)의 간본이다.

(12) 목서가 영인본(通文館, 1954)에서는 얼핏보면 원래 인쇄된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점으로도 영인본의 이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480년 10월의 일이다. 10월 壬申 곧 26일의 晝講이 끝난 뒤에 試讀官 李昌臣이 詩家의 근본인 杜詩 학습의 필요성을 말하고서 전 成均館 司成인 유운겸이 그 아버지 방선에게 杜詩를 전수받아 자못 정통하고 능숙하니 年少文臣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아뢰자 성종이 허가하였던 것이다.⁽¹³⁾ 그러므로 弘文館에서 이때 수업한 젊은 文臣과 함께 유운겸이 언해에 착수한 것이라 하겠다. 이때 서문을 쓴 曹偉도 弘文館 修撰으로서 참여하였을 것이나, 品階와 나이가 상당히 뒤지고 杜詩에 대한 지식에서도 앞섰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언해의 중심 인물은 유운겸임에 틀림없다.⁽¹⁴⁾ 그러나 학계에서 定說처럼 되어 있는 義砧과 柳休復의 언해 참여에 대하여는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⁵⁾

먼저 유희복의 경우는 참여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이 없다. 위에서 인용한 용재총화에 따르면 그는 杜詩에 精熟하여 세종 때 白衣로서 杜詩 주해에 참여하였고, 成侃의 仲氏인 成侃에게 杜詩를 가르쳐 文理를 크게 깨치게 하였다고도 한다.⁽¹⁶⁾ 그러나 그에 관한 實錄 기사가 1467년(세조 13)에 承文院 副校理에 있었다는 것⁽¹⁷⁾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 말한 대로 유운겸이 1480년 10월에 젊은 文臣에게 杜詩를 가르쳤을 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 62세인 유운겸의 종형으로서 故人이 되었거나 身病 등의 이유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언해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온당하다.

의침의 경우도 언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이때

(13) 성종실록 11년 10월 壬申조 참조.

(14) 당시 유운겸은 62세로 종3품이고 조위는 28세로 정6품의 직위에 있었다. 운겸이 杜詩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이 있다는 기록은 바로 위의 주 13)에 말한 실록 기사와 뒤에 말할 野史의 기사에 나타난다. 그가 1488년(성종 19) 敦寧府 都正이 되었을 때의 실록 史評에서 禁錮에 연좌되어 늦게 문과에 급제하였고 杜詩에 밝은 것으로 왕의 知遇를 받아 승지와 參議가 되었지만 평생 아내를 소박하여 대우가 박하였다고 한 점(성종실록 19년 9월 丁丑조)에서도 杜詩에 대한 권위는 조정의 중론이었음을 확인한다.

(15) 이에 대하여는 前間恭作(1957:1427), 최현배(1961:122), 이병주(1970) 등을 참조. 안병희(1971, 1992) 등에서도 의침이 언해에 참여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16) 앞 주 7)의 용재총화를 참조.

(17) 세조실록 13년 1월 戊寅조 참조.

그는 이미 故人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의침은 호를 月窓이라 하는데, 만우에 못지 않은 韻釋이다. 그의 「靈通寺西樓 次古人韻」이란 7언 율시가 東文選(권16)과 東國輿地勝覽(권12)에 실릴 정도로 훌륭한 시를 남겼고, 杜詩에도 능통하여 유방선에게 그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뒤의 주 19) 참조). 유방선이 12살 때인 1399년(정종 1) 의침을 만났는데, 그때 의침은 영통사의 주지였다. 영통사는 長湍의 五冠山 아래에 있는데, 그 만남을 유방선은 「冠山歌」(泰齋集 권1)로 읊고 있다. 그 1절을 보면, 만남의 상황을 여실히 알 수 있다.

堂頭月窓初卓錫 冠蓋傾都來絡繹 居僧盡是廬山徒 採蕨賞芳事筵席 我年二六逐諸子
手携書帙出塵陌 直謁月窓使摳衣 薰陶深荷擊蒙益 餘力命題試詞賦 榜頭設宴爲勸責

이때 의침은 華嚴宗의 巨刹인 영통사의 주지이므로 적어도 나이 50은 지났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글은 더러 보인다. 權近이 1380년(고려 우왕 6, 洪武庚申) 5월 16일에 지은 「贈華嚴中德義砧序」(陽村集 권15, 東文選 권90)와 1403년(태종 3, 癸未) 경에 지은 「法王寺祖師堂記」(陽村集 권14, 東文選 권80) 등이 그것이다. 앞글의 中德은 住持에 오를 수 있는 僧階이므로 中年의 나이로야 될 수 있는 것이고, 뒤의 글은 의침이 判華嚴宗事로서 祖師堂을 중창하였을 때에 지은 것이므로 상당한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杜詩諺解가 편찬된 1481년(성종 12)은 말할 것도 없고, 1443년(세종 25)의 杜詩 주해에도 관여한 기록이 없다. 그가 살아서 언해에 참여하였다면 130세가 훨씬 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때 이미 故人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위의 「贈華嚴中德義砧序」에 보면, 의침이 李穡의 시를 가지고 와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鄭夢周, 金九容, 李崇仁 등과 교류가 있음을 말한 내용이 있다. 더욱이 이색은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 「送月窓序」(牧隱文藁 권8, 東文選 권87)를 남겼고, 의침이 위의 「증의침서」를 권근에게 부탁할 때도 그러하였지만 鄭道傳에게 「送華嚴宗事友雲序」(三峯集 권3, 東文選 권89)를 부탁할 때에도 이색의 시를 가지고 와서 그의 명령으로 글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교분 관계를 감안하면, 곧 언급하겠지만 野史

(뒤의 주 19) 참조)에서 杜詩에 능통하다고 한 의침이 생존하였다면 제자라고 할 유방선의 조카를 참여시키고 만우를 서울로 불러들인 杜詩의 주해 사업에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해 사업에는 참여한 만우도 杜詩諺解가 편찬되었을 때는 이미 고인이다. 생존하였다면 120세가 넘기 때문이다.⁽¹⁸⁾

설사 이러한 승려가 생존하였어도 당시의 조정 분위기에서, 더욱이 홍문관의 사업에 승려가 참여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성종 초에 단행된 刊經都監의 폐지만 보아도 그것은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 杜詩諺解는 유윤겸을 비롯한 홍문관 문신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杜詩를 가르친 사람들의 간접적인 기여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 중에서도 유윤겸과 유희복에게 杜詩를 가르친 유방선, 유방선에게 杜詩를 가르친 의침의 영향은 큰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을 당시 직접 杜詩의 언해에 대하여 듣거나 보았을 曹伸이 謏聞瑣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¹⁹⁾

僧義砧號月窓 泰齋(유방선의 호)所從學杜詩者 柳參議允謙 傳於父泰齋 世祿通杜詩 成廟嘗令以諺文 註解杜詩 間有迂曲處 此月窓之所傳歟

여기에는 승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杜詩諺解의 잘못이 의침의 가르침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잘 된 언해는 의침의 가르침에 말미암은 것이 된다. 이것이 杜詩諺解와 의침의 관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침이 언해에 참여하였다는 후대의 기록으로 발전한 것이라 생각된다.⁽²⁰⁾

그런데 모든 번역과 마찬가지로 杜詩諺解에도 잘못 된 곳이 있을 것이다.

(18) 泰東古典研究 5(한림대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1989)에 실린 匪懈堂瀟湘八景詩帖의 영인과 任昌淳 선생의 해설에 따르면, 시첩에 시를 쓴 1442년(세종 24)에 만우는 86세란 쪽지가 있으며, 용재총화(권6)에 따르면 成任, 성간 형제가 회암사에서 공부할 때 90여세인 데도 정정하였다고 한다. 성임 등의 등과가 1450년(세종 32) 전후이므로 15세기 40년대 후반에 그는 90여세가 되는 것이다.

(19) 이것은 소문쇄록에는 보이지 않고 洪萬宗이 편찬한 詩話叢林에 수록되어 전한다. 여기서는 洪贊裕 역, 譯註詩話叢林 上(通文館, 1993, p.214)에서 인용한다.

(20) 여기 덧붙일 일은 유방선도 그에게 杜詩를 가르친 의침과 마찬가지로 세종 때의 杜詩 주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주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1443년(세종 25) 봄에 56세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조신은 언해에 간혹 괴상한 데가 있다고 하였으나 16세기의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²¹⁾

不分二字 中國方言 分與噴同 不分即怒也 猶言未噴其怒而含蓄在心也 老杜詩 不分
 桃花紅勝錦 生憎柳絮白於絲 生憎即憎也 亦方言 不分既方言故 以生憎對之 東坡詩
 不分東君專節物 亦此意也

곧 「不分」이 중국의 속어로서 蘇東坡의 시까지 예증하면서 성낸다는 뜻이나 잘못 언해되었다는 것이다. 杜詩諺解(권23, 23a)에서는 이 구절에 「此는 愁別故로 不愛景物也」라」라 주석하고서 다음과 같이 언해하였다.

복셨고저 불고미 錦이라와 더오물 내 分엿것 삼디 못흐고 버듕개야지 소오미라
 와 히요물 ㄹ장 미노라

여기서는 「不分」을 내 분수에 합당한 것으로 삼지 못한다고 길게 언해하였다. 언해가 지나치게 긴 점으로도 어숙권의 지적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잘못은 조신의 말과 같이 간혹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杜詩諺解는 한글창제 이후에 행해진 최초의 성공적인 문학작품의 번역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해에 중심 인물로 참여한 유윤겸과, 그에게 杜詩를 가르친 유방선과 의침의 공로를 기리지 않을 수 없다.⁽²²⁾

3. 原刊本과 그 校正

杜詩諺解도 다른 官版本과 마찬가지로 간행에 관한 기록이 없다. 현재 原刊本은 권1,2,4를 제하고 모두 전하고 있는데, 표하게도 그 권1이 전하지 않으므로 간년의 절대연대를 알리는 내사기도 볼 수 없다. 序跋이나 책의 형태로 간년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판심에 黑魚尾가 나타나고, 자획의 마모

(21) 앞의 주 19)의 책(p.320)에서 인용한다.

(22) 유방선이 의침에게 배운 것은 앞에서 인용된 冠山歌나 소문쇄설의 기록으로 분명하다. 유방선의 문집(권2)에는 의침에게 보낸 「寄月窓砧上人」과 「寄月窓上人」이란 7언절구의 시가 있는데, 특히 후자에서는 杜詩를 함께 읽고 싶어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十年南北苦相思 有底浮生久別離 何日更參方丈去 焚香細讀杜陵詩

가 없는 乙亥字로 된 점에서 15세기 후반의 간본임이 확인된다.⁽²³⁾ 거기에 重刊本에 실린 曹偉의 서문 「杜詩序」가 1481년(성종 12, 成化 17) 12월 상한에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해 가을에 언해에 대한 성종의 명령이 있는 지 서너 달만에 책을 완성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것은 金訥의 문집인 顏樂堂集(권2)에 실려 있는 「翻譯杜詩序」로써도 뒷받침된다.⁽²⁴⁾ 서문 날짜가 없으나 그 허두에서 「上之十二年(1481)月日」에 언해를 명령하였다고 한 다음에

凡閱幾月 第一卷先成 繕寫投進 以稟睿裁 上賜覽 曰可 令卒事 仍命臣序之

라 하여 몇 달만에 1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조위의 서문 내용과 합치한다. 그러므로 완성된 책은 典校署(당시 校書館의 바뀐 이름)로 보내서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⁵⁾

그런데 위 김혼의 서문에 나오는 「第一卷」에 대하여 글자 그대로 杜詩諺解 전질 중 권1이란 해석(김일근 1964, 1966)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첫번째로 만든 1부란 뜻으로 해석한 견해(이병주 1966)를 수용하여 1481년에 전질의 원고가 완성되어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언해에 대한 王命이 내린 지 서너 달만에 겨우 권1만이 완성되었다면 원간본의 연대는 적어도 두어 해 내리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1이란 해석은 책

(23) 한글활자는 한글창제 직후에는 갑인자와 함께 쓰였으나, 세조 때의 楞嚴經諺解, 阿彌陀經諺解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는 을해자와 함께 쓰였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한글활자의 사용에서 특기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24) 이 서문은 김일근(1964)로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 중간본에 이 서문이 없는 것은 아들 金安老 때문에 원간본에서 삭제된 것(김일근 1964, 1966)인지, 성종이 채택하지 않아서 원간본에 처음부터 실리지 않은 것(이병주 1965, 1966)인지 원간본 권1이 나타나야 해명될 것이다. 그러나 김혼의 서문에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원간본에 실린 문제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25) 1482년(성종 13) 가을 弘文館 副提學 유윤겸 등이 箚子를 올려서 흥년이 대단하므로 設局하여 추진 중인 四傳과 春秋, 剛目新增, 文翰類選, 杜詩, 李白詩, 庸學口訣과 같은 책의 편찬을 중단할 것을 아뢰어 성종의 허락을 받은 일(성종실록 13년 7월 癸酉조)로써 杜詩諺解의 간행을 1482년 이후의 일로 추정하는 일이 있다(문화재 관리국,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90 지정편), 1991, 杜詩諺解 관계 보고). 그러나 杜詩諺解는 그 전해에 편찬이 끝났으므로, 여기의 杜詩는 한문으로 된 다른 책의 편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편찬의 관례가 무시되고 지나치게 글자에 얽매어 있다.

國語史 자료만 보더라도, 王命으로 편찬되거나 언해된 龍飛御天歌와 楞嚴經諺解 등은 그 서문이나 箋文에 따르면 언제나 전질이 繕寫되어 왕에게 진상되었다. 杜詩諺解만 권1이 선사되어 진상되었다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편찬이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위 김흔의 서문은 조위의 서문에 나오는 「書成 繕寫而進 命臣序」와 비교하여 「第一卷先成」이 「書成」과 일치한다. 따라서 「第一卷」은 책 1부라고 해석된다. 실지로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는 「卷, 本」이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예컨대 「二卷」은 2부, 2권 또는 권2를 가리켰다. 「本」의 경우에도 「重刻杜詩諺解序」에서는 1부, 通文館誌(권8 書籍조)에서는 1권을 가리킨다. 1부를 분명히 가리킬 때에는 「一部, 一件」이 쓰였으나 「卷, 本」도 쓰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卷, 本」이 쓰였을 때에는 문맥에 따른 올바른 해석이 요망된다. 문제의 구절이 「권1」이란 해석도 가능하지만, 왕명에 따른 편찬인 사실과 조위의 서문에 비추어서 전질 1부라고 해석함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럴 경우에 서너 달만에 杜詩諺解의 편찬이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량이 비슷한 楞嚴經諺解의 1461년(세조 7) 10월 11일자 金守濫 등의 발문에 따르면 1461년 6월 11일에 왕명에 따라 언해에 착수하여 8월 22일에 원고가 완성되고 다시 주석 등을 보완하여 10월 상순에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한다. 金剛經諺解는 韓繼禧의 발문에 따르면 불과 5일만에 언해가 완성되었다고도 한다. 杜詩諺解의 편찬도 서너 달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1481년에 언해가 완성되어 간행된 原刊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본인 纂註杜詩의 권차, 문목과 제목의 배치 등을 따랐다. 저본에서 주석이 배제되어 「纂註」란 冠稱을 삭제하였으나 杜甫의 관직에서 유래한 칭호인 「工部」를 저본의 「杜詩」에 추가하여 6자의 서명을 만든 것도 저본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版心題는 저본과 함께 「杜詩」이다. 간경도감 간행의 佛經諺解의 서명이 판심제에 이르기까지 그 원전과 똑같이 되게 하여 원전과 언해를 짝지은 것에 맞추어서 杜詩諺解가 저본인 纂註杜詩의 언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려 한 의도를 보인 것이다(사진3, 4, 5 참조).

그러나 언해의 실체는 佛經諺解와 사뭇 다르다. 그 차이점으로는, 첫째 시의 제목에도 구결을 다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언해까지 덧붙인 일이 있다. 거의 모든 제목은 간단한 어구이므로 구결이 필요하지 않지만, 긴 문장으로 된 제목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맥을 밝히는 구결과, 때로 언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구결의 예를 2개만 들기로 한다.

將別巫峽홀시 贈南卿兄을 濃西果園四十畝호노라(권15, 15b)

課小豎호여 鋤斫舍北果林이 枝蔓荒穢호야 淨訖호고 移床호라(권15, 16b)

제목에 구결을 달고 언해를 덧붙인 예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제목이 「送大理封主簿五郎」으로 시작되어 5행인 경우(권8, 68b-69a)로서 언해(69a)까지 있다.

둘째 시 본문에는 구결이 없다. 이는 본문이 거의 5언이나 7언으로 되어 문장 구조가 분명한 데다 곧이어 언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선조 때에 편찬, 간행된 詩經諺解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책이 간행된 바로 이듬해인 1482년(성종 13)에 나온 金剛經三家解와 南明集諺解에서 頌을 언해한 경우와도 다르다. 이것은 杜詩諺解의 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여기 덧붙일 일은 詩序가 있을 때 구결만 단 것(권16, 46a-47a)과 구결 없이 언해만 있는 것(권16, 65 및 67b-68a), 그리고 구결을 달고 언해까지 있는 것(권19, 23a-24b)으로 나뉘는 사실이다. 이는 시 본문과 같이 다루거나 시 제목과 유사하게 다른 차이라 하겠다.

셋째 주석에는 구결이 달려 있다. 이는 시 본문과 대조되는 일로서, 아무리 간단한 구조의 주석문에도 예외가 없다. 당시의 口訣書나 諺解의 구결과 같이 이들 구결에는 방점이 표기되지 않는다. 그러한 예를 권7에서 몇 예를 보인다.

檻는 丘宜反호니 木名이라 籠은 竹名이라(1a)

百花潭은 卽 浣花溪라(2b)

野老는 甫라(3a)

주석이 간혹 국어의 문장으로도 나타난다. 이때에는 언해와 같이 방점까

지 표기된다.

李陵曰士氣少衰하니 軍中에 엇데 겨지비 업스리오 하고 어더 주기다(권8, 68a)

그런데 구결문과 국어 문장이 합쳐진 주석도 없지 않다. 이때도 구결문으로 생각되는 부분에는 방점 표기가 없다.

町畦는 岸畔也 | 니 모난 양 홀솔 니르다(권7, 8b)⁽²⁶⁾

秧은 禾莖이니 插秧은 모심기라(권7, 36b)

위의 예문에서 방점은 각각 「모난양, 모심기」 이하에서만 표기되었다. 바로 앞의 어미나 조사에는 방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목 「破船」에 대한 다음 주석에서

此는 避難호얏다가 再來而見其船之破也 | 라

오직 「호얏다가」에 방점을 표기하였다. 이것은 전체를 구결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앞의 주석과 같이 일부를 국어 문장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넷째 언해는 國漢文 혼용으로 되어 있으나, 한자에 한글로 독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수한 국한문 혼용의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은 당시의 언해에서는 없다. 이 책보다 1년이 늦은 金剛經三家解와 南明集諺解의 계송 언해에서도 한자마다 한글 독음이 달려 있다. 오직 龍飛御天歌의 국어 가사에서는 이 책과 같이 한글 독음이 달려 있지 않다. 이것은 독자를 한자와 한문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으로 상정한 결과일 수 있다.⁽²⁷⁾ 거기에 덧붙여서 文臣들 사이에서는 東國正韻의 한자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독음 표기를 보류한 것으로도 생각된다.⁽²⁸⁾ 그 이

(26) 후반부의 국어 문장은 교정된 것이다. 교정되지 않는 책에는 「猶言有圭角也」라」로 되어 있다(안병희 1971:314, 사진6, 7 참조). 이러한 교정에 대하여는 뒤에 설명될 것이다.

(27) 이러한 해석은 김완진(1972)를 참조할 것.

(28) 교정된 한자음에 대한 거부감과 반대는 崔萬理의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에서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 後世

유가 어디에 있든, 국어 문장 표기에서 한자 독음을 달지 않는 것은 하나의 특징이다.

끝으로 이 책의 방점 표기가 갖는 특징이다. 이것은 이미 당시 聲調에 대한 연구로써 잘 알려져 있으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방점 표기와 활자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할 가치가 있다. 같은 책의 같은 곳에서 방점 표기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다. 곧 권16의 마지막 장(74a)은 가람문고 본에서는 방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²⁹⁾ 通文館 소장본에서는 방점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다.⁽³⁰⁾ 이 사실에서 한글과 방점은 하나의 활자가 아니라 각각 따로 된 활자임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같은 한글에 표기된 같은 방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사실로써 확인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福井玲 1987:35). 거기에 방점의 활자가 따로 되었을 때 얻는 경제성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癸未字와 庚子字로 된 활자본은 匡郭의 변란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甲寅字本에 이르러서는 변란을 조합하여 활자본의 조판을 쉽게 하였다는 우리 나라 활자 인쇄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한글과 방점을 분리하여 각각의 활자로 만들어 조판하였다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³¹⁾

이와 같이 방점 활자가 따로 구조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극히 드물지만 印面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첫째로 한글 활자의 4각인 어깨(shoulder) 부분의 일부가 인쇄된 예가 있다. 권6의 「우회(4b5앞줄), 기세(15b1앞줄)」의 둘째 글자는 모두 거성인데, 머리부분의 일부가 각각 「희, 세」의 받

公議何如」라 한 일과, 東國正韻을 8도와 성균관 四部學堂에 반사하면서 세종이 우리 나라 사람이 俗韻에 익숙한 지 오래므로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학자로 하여금 수의로 하도록 하게 한 일(세종실록 30년 10월 庚午 조)로 짐작된다.

(29) 이를 저본으로 영인한 杜詩諺解 권15,16(通文館, 1959)에서 확인된다.

(30) 이에 대한 보고는 福井玲(1987:32)에 있다. 통문관소장본의 방점 표기는 福井玲(1987:48) 부표 2에 활판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점 누락의 착오는 앞에서 말한 구결문과 국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주석에 나타나는 방점 표기와 무관하지 않을지 모른다.

(31) 이것은 갑인자본의 月印千江之曲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한글과 방점이 다른 활자로 된 사실과 함께, 나아가 한글 활자의 「름, 물」 등은 위아래를 뒤집어서 「물, 림」 등으로 인쇄하였을 가능성도 소개한 바 있다(안병희 1992b:10, 특히 주 8).

침 ㄴ처럼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은 浮彫 곧 돈을새김으로 한 한글의 바탕 가장자리인 어깨 부분을 다듬지 않았거나 활자가 잘못 식자된 데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방점과 한글이 하나의 활자라면 머리부분의 일부가 거성의 방점 아래까지 나타나야 한다. 둘째로 평성인 경우에 방점이 표기될 자리에 가느다란 막대기가 나타난다. 같은 책의 「ㄹ마니(12a5앞줄), 기리(29b4앞줄)」의 「니, 기」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앞의 예에서는 선명한 막대기(세로 가로가 각기 약 6mm 2mm)가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방점이 한글과 분리된 활자로 인쇄되었다고 할 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杜詩諺解와 같이 활자로 간행된 책일 경우에는 誤字가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校正을 세밀히 보고 관계자에게 誤字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더라도 植字와 組版, 교정과 印出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 착오가 없을 수 없다. 한글 문헌만 보더라도 활자본인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楞嚴經諺解, 內訓, 呂氏鄉約諺解 등에서 그러하다.⁽³²⁾ 木版本에도 오자가 있지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은 것이다. 우리는 杜詩諺解의 오자와 교정에 대하여 일찍이 다룬 일이 있다.⁽³³⁾ 오늘날 전래되는 그 대부분의 원간본은 오자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러한 책은 하나같이 紙質이 얇고 거칠며, 허리 이은 종이로도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교정이 행해진 책이 함께 전하고 있다. 지질이 좋고 책장이 온종이로만 되어 있으며, 책도 약간 큰 편이다. 가람문고본 권6, 7 1책이 바로 그러한 예다(사진6, 7 참조). 그런데 두어 해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교정본인 권17, 18, 19 1책을 수장하였다. 지질도 위의 책과 같고, 교정의 방법도 똑같이 예리한 칼로 오려낸 곳에 종이를 붙여 같은 활자로 인쇄하였다. 권19가 오자가 많아서 상당한 교정이 나타난다. 통문관소장본의 해당 오자를 대조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앞의 괄호 안이 교정된 것이고, 뒤가 통문관본의 해당 부분이다. 단, 방점은 생략한다. 출처의 앞, 뒤는 쌍행인 언해와 주석에서의 앞줄, 뒷줄을 가리킨다.

(32) 誤字와 校正에 대하여는 안병희(1992a)에서 이들 책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참고하기 바란다.

(33) 안병희(1971:314-5) 참조. 활자본과 함께 그 중간본인 목판본에서도 오자가 나타나는 것은 안병희(1992a:32-3)에서 언급한 일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 官版本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思憶 ^ㅎ 시(나라) (4a3뒤)	ㅎ시 ^ㅎ 낫다
물근 (鑑 ^을) (5a4앞)	물근 보물
(黃衣)書卷 (8a7앞)	누른 書卷
(그저귀) (12b5앞)	또 모든
기(르)모로 (14a6뒤)	기로모로
瓊 ^ㅎ (고) (16a4뒤)	瓊 ^ㅎ 니
絹(이니 古) (20a2)	絹也 니
(흰 ^ㅎ)도다 (26a5뒤)	어위도다
喻(薛丈) (34b5뒤)	喻李四
言(薛丈) (35a1앞)	言李四
(이 두이를 나 ^라 서) (36b4앞)	用神女與鶴事 ^하 야
(굴근 모기) (40b1뒤)	모기 굶게
먹(노라) (42a5뒤)	먹 ^ㅎ 낫다
애(를 덩다노)라 (43a1뒤)	애를 데요라
夜(雨剪春) (43a7)	夜剪春雨
맛(나)낫다 (47a6뒤)	맛 ^ㅎ 낫 ^ㅎ 낫다
(헝 ^ㅎ) 잇는 (47a8앞)	멧다 잇는

여기 교정은 대부분이 새로 인쇄된 종이를 붙인 것이나, 자획과 받침을 따내기만 한 것도 있다. 곧 「기르모로, 맛나^ㅎ낫다」의 「르, 나」는 「로, 낫」에서 획과 받침만을 따낸 것이고, 「먹노라」의 「노」도 받침을 따내고 「라」가 인쇄된 종이를 그 자리까지 올려 붙여 교정한 것이다. 교정을 되도록 쉽게 하려 한 결과로 이해된다.

방법은 어떻든 이러한 교정의 성격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조판과 인쇄에 관여한 典校署의 匠人들이 저지른 기술적인 착오에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홍문관 문신들이 편찬한 杜詩諺解 원고의 잘못을 교정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활자본인 데서 유래한 오자의 교정인지, 서둘러 된 원고의 오류와 미비를 수정한 데서 온 교정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어 예를 제하고는 모두 원고의 잘못을 교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곧 「기르모로, 野雨剪春, 맛나^ㅎ낫다」는 장인들의 착오로 들릴 수 있는 오자의 교정이나, 그밖의 예는 원고를 새로이 수정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어휘와 어미가 원고와 같은데, 통문관본과 같은 오자를 장인

들이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人名인 「李四, 薛丈」의 차이는 그것이 나오는 주석이 「奉酬薛十二丈判官見贈」의 시에 있는 것임에도 바로 앞에 나오는 「奉贈射洪李四丈」의 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작성된 원고에 말미암는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앞 시의 주석에는 「李四」(32b8앞, 33b4앞)가 나온다. 이러한 성격은 권6, 7 등의 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다만 권6의 경우에는 활자본을 만든 장인들의 착오가 절반 정도로 보일 뿐이다.⁽³⁴⁾

원고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일어난 이 책의 교정은 언해가 상당히 서둘러 된 것으로 보이게 한다. 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楞嚴經諺解 활자본의 원고는 발문에 따르면 4개월만에 주석까지 모두 끝났다. 그렇게 이루어진 활자본에는 상당한 잘못이 있어서 인출된 책에 朱墨으로 교정이 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 校書館 장인들이 저지른 오자의 교정이 아니라 원고의 잘못을 고친 교정인 것이다. 이 杜詩諺解도 서너 달만에 언해가 끝난 것이므로 원고에 잘못이 나타나고, 책이 인출된 뒤에 교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된다. 이 교정도 언해가 1481년에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정은 중간본의 간행에서 그대로 지켜져 있다(사진8 참조). 권19의 경우도 모두 교정본과 같다. 다만 「薛丈」가 「薛丈이」로 되었을 뿐이다. 발음이 자음이므로 주격조사는 당연히 「이」라야 하는데 원간본 교정에서 놓친 것을 중간하면서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정본이 없는 대부분의 원간본의 이용에서는 중간본과의 대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중간본 자체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지방판이므로 실제로 상당한 오자가 나타난다. 그러한 오자와 언어변화를 반영한 차이는 물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간본이 반드시 좋은 자료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다. 교정된 원간본에도 오자가 있다. 교정되지 않은 책과 똑같이 교

(34) 교정된 오자의 책임은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원고와 장인 두 곳에 있다. 1574년(선조 7)의 내사본인 呂氏鄉約諺解에서 「副約正一人, 禮俗不相成」은 「二人, 成一作交」와 같이 교정되거나 난상에 주기되어 있다. 이것은 원고의 잘못으로 당시 校書館 提調로서 이 일을 관장한 柳希春의 眉巖日記(1973년 11월 4일자)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안병희 1992a:343). 그 책에도 물론 장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단순한 오자의 교정도 나타난다.

정된 권19에 나오는 「醉거늘(19a1앞), 빈 닭 햇빛(40b7앞)」은 중간본에서 비로소 교정된 대로 「醉커늘, 빈 닭 햇빛」이러야 될 오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널리 이용되는 원간본의 영인본에서 아무런 해제가 없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4. 맺 는 말

이상으로 杜詩諺解에 대한 서지적 고찰을 마치기로 한다. 머리말에서 말한 대로 원간본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1632년(인조 10) 慶尙道의 여러 고을에서 관찰사와 대구부사의 지시와 감독으로 판각하여 간행된 重刊本에 대한 설명은 행해지지 못하였다. 중간본은 그 자체로도 문헌적 가치가 있지만, 지금 전하지 않는 원간본의 내용과 책이 인출된 뒤의 교정을 알려 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고찰이 없는 杜詩諺解의 서지는 완전하지 못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간본의 서지적 고찰은 實冊을 일일이 검토하고 대조하여야 할 힘든 작업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중간본에는 본문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異本의 존재가 알려져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로는 권8을 중심으로 한 전재호(1973:259-76)의 보고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그 보고는 변란이 주로 雙邊(거기서는 重匡이라 하였다)인 계통과 單邊(거기서는 單匡이라 하였다)인 계통으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匡郭의 크기 등에 따라 나누어 모두 4종의 이본이 존재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병주(1970:130)에서도 책판의 손상으로 修補와 補刻으로 된 이본이 있다고 하여 위의 보고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권8로써 본다면 중간본에는 크게 2종의 이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4종의 이본을 설정하는 일은 무리하지 않을까 한다. 광곽의 크기는 印出의 선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보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변란에서는 左右雙邊인 것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중간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서지적 검토는 새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행한 杜詩諺解 원간본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이 서지적 고찰을 끝내기로 한다.

1. 언해의 저본은 纂註杜詩이나, 바로 그 저본인 책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갑인자본 복각으로 추정되는 黑口, 黑魚尾의 목판본이 전하는데, 그 갑인자본이 언해의 저본으로서 1443년(세종 25)에 착수된 杜詩 주해 사업이 마무리되어 간행한 책이 아닌가 한다.

2. 언해에 참여한 사람은 유운점을 중심한 弘文館의 문신들이다. 이때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의침은 훨씬 전에 고인이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세종 때의 杜詩 주해에는 승려와 白衣가 참여하였다는 당대의 기록이 있으나 언해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록이 썩 후대에 나타날 뿐이다.

3. 杜詩諺解의 체재는 다른 언해와 같지 않다. 시 제목에 구결을 달고 심지어 언해도 한 일이 있으며, 시 본문에는 일체의 구결이 없으나 주석에는 구결을 달며, 언해와 일부 주석은 완전한 국한문 혼용인 것이다.

4. 杜詩諺解는 언해에 착수한 바로 1481년(성종12) 연말에 전질 25권이 완성되어 을해자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한글과 방점은 별도의 활자로 만들어져 조판되었다. 같은 책장인데도 방점만 없는 책이 있고, 印面에서 한글과 방점의 활자가 따로 되었음을 보이는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5. 활자본에는 상당한 오자가 나타나는데, 이 책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원간본은 오자가 그대로 있으나, 그것을 교정한 책도 드물지만 전한다. 오자는 典校署 장인의 착오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 원고에서의 잘못도 있다. 오자의 교정은 중간본에서 모두 따랐으므로 원간본, 특히 교정되지 않은 원간본의 이용에는 중간본과의 대교가 필수적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參考文獻

김두중(1970), 韓國古印刷技術史, 探究堂

김완진(1972), “世宗代의 語文政策에 대한 研究”, 省谷論叢 3(省谷學術文化

財團)

- 김일근(1964), “杜詩諺解와 黃山谷詩集諺解에 대한 異見”, 국어국문학 27
 ——(1966), “杜詩諺解와 黃山谷詩集諺解에 대한 再論”, 국어국문학 31
 심경호(1992), “纂註分類杜詩解題”,纂註分類杜詩(影印本), 以會文化社
 안병희(1971), “解題”, 國語學資料選集 II, 一潮閣
 ——(1992a), 國語史資料研究, 문학과지성사
 ——(1992b), “月印千江之曲解題”, 月印千江之曲(影印本), 문화재관리국
 윤용선(1993), “杜詩諺解”,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문학과지성사
 이병주(1965), “金訢의 翻譯杜詩序에 대하여”, 佛敎史學論叢(趙明基博士華
 甲紀念論文集)
 ——(1966), “金訢의 ‘翻譯杜詩序’에 대한 再論”, 국어국문학 32
 ——(1970), 杜詩諺解批註(증보판), 通文館
 ——(1983), “杜詩諺解의 經緯와 그 聲價”, 兩田辛鎬烈先生古稀記念論叢
 전재호(1973), 杜詩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通文館
 최현배(1961), 고친한글갈, 정음사
 小倉進平(1940), 增訂朝鮮語學史, 東京:刀江書院
 前間恭作(1957), 古鮮冊譜 第三冊, 東京:東洋文庫
 福井 玲(1987), “杜詩諺解 初刊本에 대하여”(日文), 東京大學言語學論集 '87

纂註分類杜詩卷之六

宮殿 宮殿附

古詩二首 律詩六首

玉華宮 唐志貞觀二十一年建至德二年載往鄜州作

正殿覆瓦餘皆葺茅當時以為清涼勝

於九成宮也

溪回松風長 前一作迤 醜醜蓋取溪色如酒

色之碧也 溪曰言回遠 蒼鼠窠古瓦 郭璞曰

氣狀如小狐蟪蛄肉翅大尾頭膠筆 不知何

蒼鼠窠古瓦 不知何

사진1 纂註杜詩 木版(黑口黑魚尾)本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五 終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會江樓 <small>府</small>	沙邊 <small>具小舟</small>	君今起柁春江流余亦

사진2 原刊本 권25 尾題

纂註分類杜詩卷之十一
 節序 古詩律詩共五十首

大歲日 禮記中八曆三年歲次戊申正月丙午朔正月初三日有大歲日也此詩云月

寒行將老巫山坐復春 舊注云巫山在夔州府白帝城下

病多銷是客 謀拙竟何人 舊注云此詩在夔州府白帝城下

開黃道衣冠拜紫宸 舊注云此詩在夔州府白帝城下

...

榮光懸

사진3 纂註杜詩(丙子字本)

纂註分類杜詩卷之六

宮殿 宮誌附

古詩二首 律詩六首

玉華宮 日唐志貞觀二十一年建玉華宮於坊州宜君縣之鳳凰谷

公至德二載往郡時作 日寰宇記

正殿覆瓦餘其葺當時以為清涼勝

溪回松風長 日一作迥 日符堅墓在池宮

色之翠也 前有一作迥 日 蒼鼠竄古瓦 郭璞曰

鼠狀如小狐蝙蝠肉翅大尾頭勝毛 不知何

紫背芙蓉文腹下黃喙領雜白也

사진4 纂註杜詩(訓練都監字本)

分類杜工部詩卷之六

宮殿

宮詞附

古詩二首

律詩十五首

玉華宮

溪回松風長蒼鼠窟古瓦

言溪一回遠故

不知何

王殿遺構絕壁下

宮殿

陰房鬼火青壞道哀湍瀉

哀湍瀉

萬籟真笙竽

籟笙竽

사진5 杜詩諺解 권6, 1a

草即相迷
徑에 생草호야 反相迷也 高入使院호니 荒
구리라 朝列에 모로 매나 아가 노니 프서리
에 곧 서로 다 蓄積思江漢 頑踈惑町畦 蓄積
路호리로 다 蓄積思江漢 頑踈惑町畦 蓄積
鬱結이 니 思以濯之也 一라町畦는 岸畔也
을스랑호노니 어리며 踈拙 暫酬知己分還
호야町畦호물 疑惑호노라 暫酬知己分還
入故林棲 言酬報嚴武의 知我之義分然後
아는 義分을 告곡넷수
뜻기 세도로 드로 리라

舍第占歸草堂檢校聊示此詩

사진6 杜詩諺解 권7, 8b 교정(↓부분)

舍第占歸草堂檢校聊示此詩	아	入	을	積	路	徑	草
	는	故	兮	結	에	에	即
	義	林	兮	이	生	生	相
	分	棲	可	言	朝	草	迷
	을	에	哇	有	列	言	<small>上句는言爲祿而仕고下句는</small>
	감	△	호	圭	에	既	<small>離草堂고入使院고니</small>
	곡	終	을	角	모	離	<small>草堂고入使院고니</small>
	넷	老	疑	也	로	草	<small>堂고入使院고니</small>
	수	山	惑	也	매	堂	<small>고入使院고니</small>
	라	林	兮	也	나	爲	<small>祿而仕고下句는</small>

사진7 杜詩諺解 미교정(↓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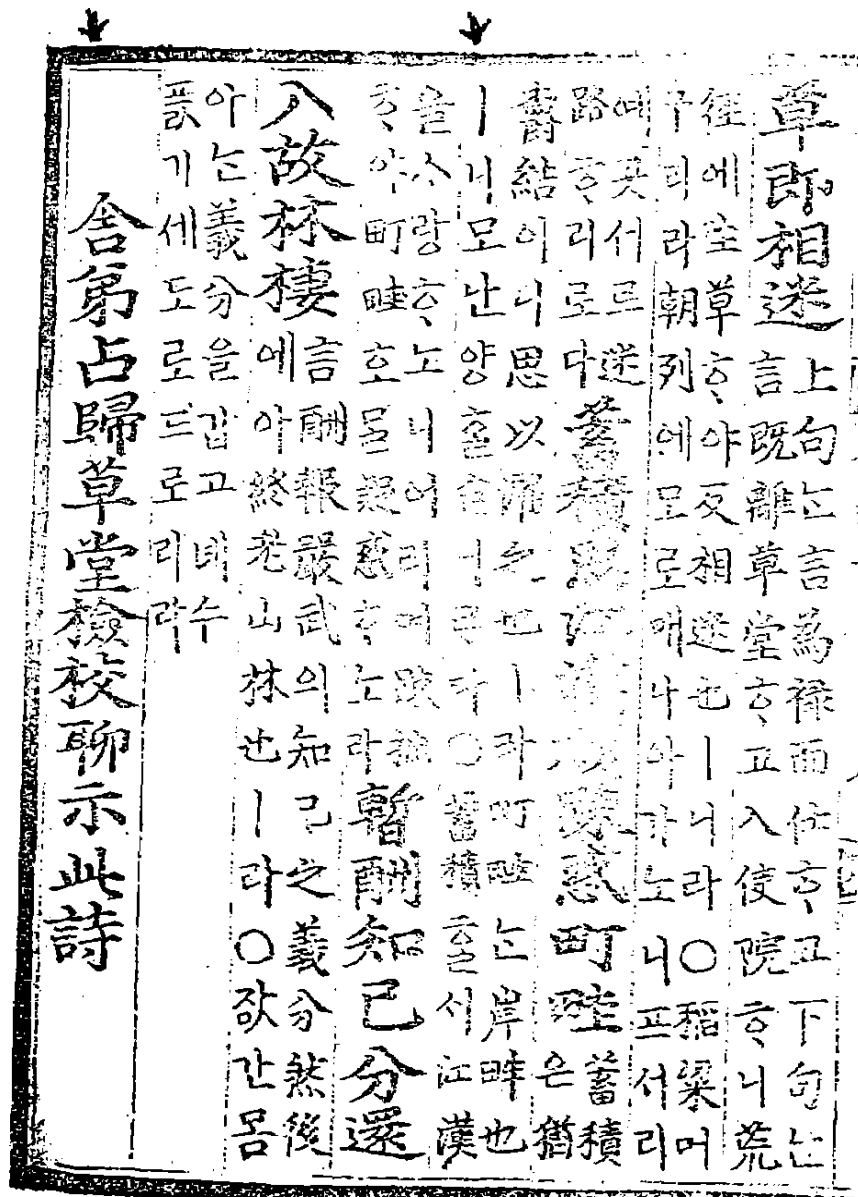


사진8 杜詩諺解(重刊本) 권7, 8b(↓부분)